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2호 [주제 제25651호] 주제 106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퇴성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탄도탄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는 속에 부대 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또 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성을 진감하고 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날에 날마다 새로운 영웅서사시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로 동계급은 얼마전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등지를 들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두고 있는 신형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 배비 하자는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천지를 뛰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었다.

발사된 탄도탄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 국력을 과시하며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승리의 비행운을 자랑하게 새기였다.

이번 발사를 통하여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를 맞이하였다.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 을 충분히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면속공격전을 벌려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계렬생산준비를 끝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부대 실전배비를 위한 최종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 유진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가 동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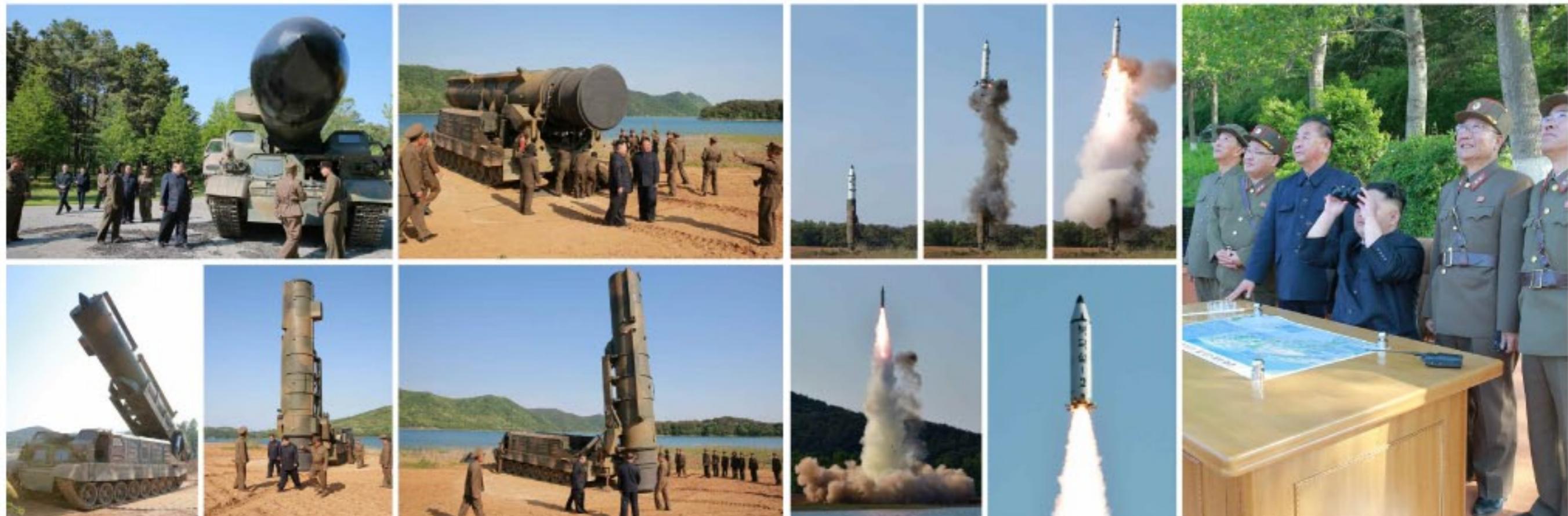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장창하동지, 천일호동지를

리대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행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 시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 출력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되었다.

2 면으로 계속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토성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탄도탄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었다.

또한 해조총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조종파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원격측정 자료에 의하여 재확증되었을뿐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활용기의 영상

감시소에서 일군들과 함께 발사결과를 분석평가하시고 백질, 만점이라고, 충족을데없이 완벽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탄도탄과 대대식자행 발사대차를 비롯한 지상기체들을 실지전투환경속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지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쏜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북극성-2》형 탄도탄은

3 면으로 계속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로성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탄도탄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전술기술적제원이 당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빨리 다

량계 멀생 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제 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절 신자킬새없이 무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빨리 다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제 당의 명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믿음직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로 통계급이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핵 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 한 투쟁의 길에서 굽함없이 계속

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 나감으로써 적들에게 전율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또다시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서사시

려 명 거 리 송 가

김 만 영

가장 귀중한 것을 노래하라면
나는 이 땅의 버진 습장을 노래하리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라면
나는 이 땅의 영웅적 현실을 노래하
리라

수령의 사상과 위엄에
끌없이 충실했던 인민만이
훌륭히 써울줄도 알고
빛나게 승리할 줄도 아는 법
이 고귀한 진리가
하늘에 떠고 땅에 되고 공기가 된 조선

자랑차다 이 위대한 조선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펼치며
세계적인 려명거리를 일떠세웠거나
인류의 한희와 경란을 불러일으킨
시대의 이 기념비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노래여라

1

한걸음 옮겨도 기쁨으로구나
려명거리
그 어디에 눈길을 주어도
한희의 적정이 가슴에 차오르누나
려명거리

눈부리 아득히 거리 한.DataBindings 바라보
아도
머리부터 끝까지 상공을 바라보아도
마냥 가슴이 꽂물결처럼 설레이는
해빛같은 이 거리를 나는 걸는다

새침들이 기쁨에 넘쳐 웃는
저 밝은 창문들에
나의 인사를 보낸다
상가마다 활짝 꽃송이들에도
기단총에 실재이는 꽃술풀에도
나의 인사를 보낸다

입사증을 받아안고
너두도 끊임 같아
다시나니 편쳐보며 눈물짓는
서 로파학자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소리없이 오르는 증강기안에서
젊은 교원부부의 손을 잡고
뜨겁게 죽여주고 싶다

이 아니 기쁠인가
이 아니 쇠얼인가
새 거리에 이사온 것이 너무 좋아
뛰노는 아이들을 불잡고
능금불을 쓰다듬어 주고 싶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뜻
꽃향기의 어울려오는 뜻
서로서로 누나는 새침들이 기쁨 속에
맑고 생생한 하나님의 이름이 풀려
이 거리에 짹 차흐드누나
려명거리! — 그 이름

쏟아져내리는 빼빛은
꽃풀로 그 이름 세기고
봄을 맞는 봄꽃들도 고운 청을 풀라
그 이름 부르는가

여이나 순간에
수천만 심장을 활활 불태운 거리
데나 순간에
세계를 우뢰처럼 전갈시킨 거리

려명거리 너는
거리는 거리이기도
그 거리만이 아니구나
단순한 거리이지만이 아니구나

혹색과 하얀색의 조화를 이룬
초고층과 고층, 다층살림집들
마치 이팔나무, 봇나무가 설매이는
백두의 수령 속에 들어선듯
승진하고 융통화려 한 모습
온갖을 불하고 놓지 않누나

얼마나 좋으마
세상에 유품가는
우리 모국의 화려한 시어로
이름난 가화를처럼
려명거리 아름다움을 그릴수 있다면

하나
천만마디 시어를 고른다 해도

사회주의 문명국
전진하는 사회주의 상징의
그 신비로움을 더 그려낼 수는 없으리

려명거리!
그 이름에 어떤 깊은 뜻을
아이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태여난 이름이며

온 나라에 새침들이 한희가
넘쳐흐르는 이 시각
그 누구라도 끌끌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 거리의 이름이 태어난

역사의 그늘을 두고
뜻깊은 그 사업을 두고

한해전 그날 그 아침
이 땅엔 춘연한 시작이 흥겼다
지구의 최대 열점지역인 조선을
세계가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원적인 수소단지 협성공으로
핵보유국의 친밀에 당당히 들어선
이 나라에 조선을 금지 멀듯
호기와 무리며

독수리 김은 날개를 더 크게 펴든
미제와 그 주종세력을

전쟁의 김은 구름을 토하며
항공보통이 통하고 기울었다
세계연선 하늘을 펼며
전략폭격기들이 폭을 지어 돌아쳤다

온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이
원주민들의 의지를 안고
최후결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속족의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었다

장군의 겁을 암에
때두의 정력이 넘치고

빛나는 암광은 세기를 깨고 있었거나
지시봉을 드리고
힘 있게 거리회복도를 짚어 가시며
창조와 건설의 새 진구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가슴속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우리 원수님 환한 미소를 뿐하시며
봉황에게 나오시면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일의 아름다운 그 시작

온갖에 무르익혀오신
용대한 거리건설의 작업도앞에서
건설의 방향과 방도까지

외세의 존은 치욕과 굴종, 망국의 길이다

오늘 침략과 애초를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더욱 더 막을수 없는 시대의 기본주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사례와 굴종을 명줄로 삼으며 치욕과 망국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위험에 처한 시대의 미숙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외세의 존을 숙명처럼 여기고 있는 남조선이다.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섬겨 바치는 대로 일신의 권력과 영달을 추구하고 동족과는 한사코 대결해온 백데 통치배들에 의해 오늘 남조선은 자주성을 상실한 외세의 머슴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 있다.

시대와 외세의 존에 물질으면 미처 날뛰다가 비참한 풍랑을 고한 박근혜역의 말로는 외세의 존은 치욕과 파멸의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민족자주에 역행하는 매국배족행위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는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아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사활적 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겨우지지하고 요구에 맞게 해결해 나갈수 있다. 민족의 주무의 사로잡아 자기 민족보다는 외세를 우선시하고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기하여 해결해보려는 시대주의의 배치가 되면 옮고그른것도 기꺼이보지 못하게 되며 결국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반역의 길을 걸게 된다.

박근혜역도에 대한 판핵과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외세에 의존하여 명줄을 이어가면서 청미보수체당에게 내린 백색의 준엄한 실관이라하고 황악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청미시대의 높에서 떠나면서 외세의 존의 낡은 데다 어버여고 반민족적인 대미주총장책과 결별할 것을 요구해나온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한민동생』은 외교안보정부의 근간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는 낡은 곡조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주민나라 등을 대상으로 벌여놓은 『전화교』, 『특사교』 놀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니,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서의 건설적 역할』 등이다. 최근에는 청미시대의 높에서 떠나면서 외세의 존의 낡은 데다 어버여고 반민족적인 대미주총장책과 결별할 것을 요구해나온다.

우리는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한민동생』은 외교안보정부의 근간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는 낡은 곡조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주민나라 등을 대상으로 벌여놓은 『전화교』, 『특사교』 놀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니,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서의 건설적 역할』 등이다. 최근에는 청미시대의 높에서 떠나면서 외세의 존의 낡은 데다 어버여고 반민족적인 대미주총장책과 결별할 것을 요구해나온다.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히고만것이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이다. 박근혜에 당은 미일상전들의 충실히 하수인이 되어 남조선에 『씨드』를 끌어들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에 문제 『합의』를 꾸며내는 등은 갖 매국배족 친죄악을 저질렀다.

시대와 외세의 존에 물질으면 미처

제과 없이 매달려 동족압살을 구걸 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내세우고 군계 단합함에 대한 민족대단위의 송고한 리념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특히 남조선에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의 공조강화를 수구하는 보수 『정권』들이 등장한 속에서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면모없는 의지를 안고 남조선당국이 북남 선언들을 존중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에서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그를 위해 모든 노력

을 다해왔다.

하지만 남조선의 청미보수체당은

외세의 존에 물질하여 거제의 단합편집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동포애 적립장과 제의를 한 번도 제기하고 외세와 적당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하였다. 리명박

역도는 외세의 공조를 부르짖으며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6. 15가

얼어놓은 금강산관광을 가로막았으며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전면차단하는 『5. 24조치』로 민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

설 미군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간통을 갈수록 확대되었다. 박근혜의

국가의 절친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것은

실 미군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평화를 향해 철두철미로

『기 티 플로』,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

국과의 북침방어군들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학항공포함, 태전

핵폭격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박근혜당이 우리 최고운영을 노리고 『침

무실화 대책』이니, 『창작정체』의 사환군,

동족압살의 출렁대기 되어 같은 말

을 하다하였다. 럭네로 남조선통치

가 끝나고 그 뒤에는 『비』, 『개』, 『방』, 3 000』이나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드래프트선언』이니, 『신피로드로스』니 하는 것들은 외세에 떠는 『북핵문제』 타령에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반공화국 대결공조로 동족단합에 도전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편집기자체로 뒤집어져 조선반도의 경장상태를 형식적으로 결화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경쟁이 더 길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

핵전쟁 핵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의

